진리의 가르침 35만 자로 승화

구당 여원구 '3교 성서전'

불교 유교 기독교의 가르침이 붓글씨로 새롭게 태어났다. 구당 여원구 작가의 '3교 성서전'이 11월 7일~ 20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 기독교, 유교 세 종교의 경전을 테마로 총 35만 자가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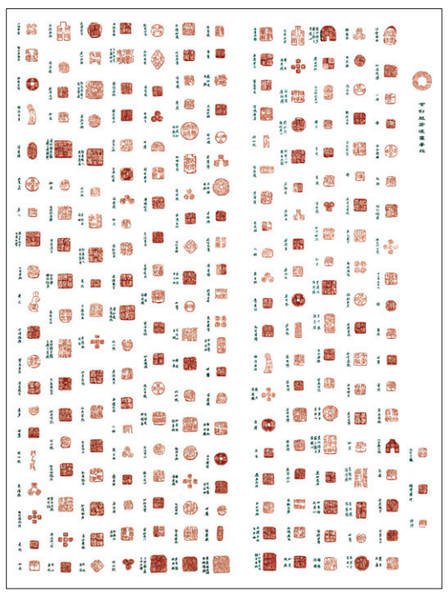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종교는 그 과정이 다를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자비와 사랑이라고 말한다. "세 종교 모두 기본적인 사상은 동일해요. 가령 성경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원적인 것에서는 불교 사상과도 만나게 되죠. 또한 〈논어〉의 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돌아보니 한 자리에서 삼교의 경전을 통해 만물의 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종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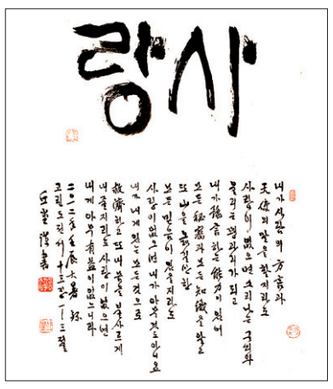
작가는 81살의 나이로 서예는 물론 전각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논어〉 전문 15,937자 10폭 해서 병풍 ▷〈법화경〉 전문 호태왕비체, 해서체(140000자) ▷〈금강경〉 1,270방의 전문 완각 ▷〈법화경예찬〉 8폭 병 호태왕비와 고체의 국한문 혼용 전문(8700자) ▷〈반야심경〉 예서 10폭병, 해서 6폭병, 전도체 6폭병 ▷〈성경〉 '산상수훈' 4,445자 6폭병 등 10여개의 다양한 서체로 작업한 방대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세 종교의 모든 경전을 핵심을 취해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논어〉는 전문 15,937자를 해서로 10폭 병풍에 썼고, '온고지신'과 같은 명구를 골라 소품으로 작품화했습니다. 불경은 지난 2년 동안 〈법화경〉 전문을 2번 썼습니다. 한 번은 호태왕비체로 쓰고, 한 번은 해서체로 썼는데 이를 합치면 14만 자에요. 사경을 한다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는데 약 2년 걸렸어요"

작가가 낮에는 〈법화경〉 사경에 전력을 기울였다면 밤에는 〈금강경〉 전각을 새겼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시에 잠드는 고행을 이어가며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금강경〉 전문을 전각으로 새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갈 때마다 전각석을 조금씩 구입해두는 등 평소 기회가 될 때마다 준비를 해두었죠. 그러다가 2009년에 법화정사 도림 스님의 제안으로 미얀마 성지순례에

법화경 · 성경 · 논어 등
핵심사상 서예로 승화
11월 7일~ 20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구당 여원구 작가는 11월 7일~ 20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의 경전을 바탕으로 '3교 성서전'을 연다. 사진 왼쪽은 금강경 전각, 오른쪽 위는 유교의 '학이구편', 오른쪽 아래는 기독교의 고린도전서 서예작품.

동행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정말 〈금강경〉 전각을 새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작해 2년에 걸쳐 1270자의 〈금강경〉 전문을 완각할 수 있었습니다"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5시간만 자고 이렇게 작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작품에 대한 열정과 신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뭘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매진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생기죠. 물론 2년 동안 오로지 작품만 하다 보니 사실 체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감기 한번 안 걸리고 크게 아프지 않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병풍과 세필 중심으로 한 소자 작품들도 선보인다. 70여점 되는 소품은 의도적으로 격식에 구애받기보다는 자유롭게 구성했다. 가령 하나의 명구를 골라 글씨를 쓰면 이 구절이 나온 본문의 원문과 해석까지도 함께 쓴다. 출처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작품화한 것이다. 또한 화선지를 단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전통한지와 삼베지만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이들은 화선지와는 달리 수명이 오래 가는 강점이 있다.

"처음에 화선지가 아니다 보니 큰 글씨를 쓰면 종이가 먹을 먹지 않아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작품이 탁해 보이기도 했죠. 또 발묵이 잘되지 않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어쩌면 내 작품 성향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품마다 삼베지, 닥지, 염색지 등으로 작업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작가는 5년 후에는 문인화로 전시를 열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사군자를 꾸준히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없지만 5년 후에 여는 전시회는 문인화를 관람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당 여원구 작가는 1932년 경기도 양평 출생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여초 김응현 선생에게 서법과 전각을 사사 받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서예), 대한민국미술인상(서예) 등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제삼대 국새각을 새기기도 했다. (02)720-116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가을 산사에서즐기는 '별미체험'

현대불교 창립 18주년 독자 초대…진관사 사찰음식 체험

촉촉한 가을비가 단풍을 적시는 절정의 가을날 진관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창립 18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이 독자들을 위한 '산사의 별미 체험'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10월 27일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독자 10명을 초대해 사찰음식을 배우고 시식하는 행사를 가졌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18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에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현대불교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반갑다"는 말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사찰 음식 시연에 들어가기 전 스님은 사찰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스님은 "사찰음식은 청정성 유연성 여법함이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이 1순위다. 마음을 아름답고 맑게 가져야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또한 음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맛이든 불평하지 말고 만든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며 감사히 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제 본격적인 사찰음식 체험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 정미 팀장의 지도 아래 더덕겨자채무침과 무청지짐 조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정미 팀장은 "사찰음식은 제철 음식 재료를 기본으로 한다. 더덕은 가을이 가장 맛있는 계절이며 지짐은 가을에는 무청을 여름에는 열무를 이용해 제철 음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더덕겨자채무침을 직접 만들어 보고 사찰음식 시식 후 차담을 하며 가을 산사의 별미 체험을 마무리 했다. 참가자 이영숙 씨는 "마음이 맛을 만든다는 주지 스님의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었다.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이 곧 수행이며 욕심도 아픔도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명심 씨는 "집에 가서 오늘 배운 요리를 남편에게 해주고 싶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희태 씨는 "봉은사 사찰음식팀에서 사찰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진관사에서 배우니 또 새롭다. 각각의 특징들을 잘 접목시켜 요리를 만들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18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 산사의 별미체험이 10월 27 진관사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이 자신이 만든 더덕겨자채무침 조리 체험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나무 되어 여행 떠나봐요"

이정이 작가 개인전…11월 7일부터 토포하우스

한국인과 소나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지만 가장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나무가 소나무이기도 하다. 절개와 굳은 의지,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수묵담채화에 담아낸 작가가 있다. 바로 한국화가 이정이 씨다.

11월 7일~13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이정이 작가의 '소나무가 되어 떠나는 여행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범어사 들머리숲의 '솔향에 취한 탑', 통도사 들머리 숲 고송 '시간이 멈춘 향기', 칠장사 '나한전 나옹송', 단호사 '솔바람에 띄우는 소망' 등의 소나무 작품을 전시한다.

그녀는 소나무를 의인화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나무 여행은 삶의 근본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보다 긴 삶을 살아가는 소나무, 그 소나무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짧은 생을 사는 다양한 형태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나무의 견해를 통해 본 소나무와 사람의 삶을 생각해보고자 했죠"

그리고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의 삶과 함께 하는 소나무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동안 사람이 머문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정겨운 소나무를 찾아다니며 현장 스케치를 했습니다. 옛 향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만나면 우리네 삶의 여정을 떠올리게 됐죠. 이를 통해 나무를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정이 作 '단호사'

이정이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자연의 작은 숨소리' '구름 따라 흐르는 마음의 풍경' '돌샘에는 꽃이 피고 달이 뜨네' 등의 전시를 열었다.

정혜숙 기자

이효리·루시드 폴, '힐링음악'으로 만나다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 앨범 발매

이효리, 루시드 폴, 이루마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의 '힐링 뮤직'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10월 30일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앨범 '소중한 만남(Precious Encounter)'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소중한 만남'을 테마로 나와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휴식과 설렘, 내면의 발견 등 템플스테이 10년의 여정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감동과 교감의 스토리를 담은 총 6곡의 '힐링 뮤직'이 수록돼 있다. 앨범에는 이효리, 루시드 폴, 이루마, 치코 등 국내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앨범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때까지'는 루시드 폴이 작사 · 작곡하고 이효리가 노래한 곡으로, 일상에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풍부한 감성이 돋보인다.

루시드 폴은 "이 곡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로운 나를 만난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효리의 감성 보컬로 따뜻하고 설레이는 느낌들이 풍성하게 더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타이틀곡 외에도 '숲을 걷다'는 이루마의 감미롭고 섬세한 피아노 연주를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 · 칠레 퓨전 음악 밴드 치코의 '행복한 속삭임'은 이국적인 리듬과 잔잔한 선율로 듣기 편안한 음악을 선사한다.

이번 앨범은 비매품으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 전시 '스마일(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다)' 전시회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조계사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 체험행사에 참가 시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 타이틀곡 '다시 만날 때까지'는 유투브(www.youtube.com)를 통해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되며, 전곡의 온라인 음원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